

소설이니까 덮어둘 몇가지 허물

한의사가 읽어본 「소설 동의보감」의 문제

홍원식

경희대 교수 · 한의학

한 마디로 「소설 동의보감」을 읽는 동안 코끝이 시큰한 감동을 한 두번 느낀 것이 아니었다. 한의학 공부를 하고 한의학을 업으로 하면서 이렇게 자랑스럽고 마음 뿌듯할 수 없었다.

오늘날까지 학교 강단에서, 환자 앞에서, 또는 글을 통하여 한의학이 위대하다는 얘기를 직업적으로 습관적으로 이야기해 온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나의 설명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나를 실감하였다.

한의학의 본연 감동으로 일깨워

허준의 스승 유의태가 죽으면서 당부하는 말, “허준은 보야라. 내 몸을 가르고 살을 찢어 사람의 오장과 육부의 생김새와 그 기능을 똑똑히 보고 확인하고 사람의 몸 속에 퍼진 삼백예순 다섯 마디의 뼈가 얹히는 이치와 머리와 손끝과 발끝까지 퍼진 열두 경락과 요소를 살피서 그로써 네 정신(본분 사명)의 계기로 삼기를 바라노라. 사람이 천수를 다하는 날까지 무병하게 생명을 지켜줄 방법이 없을까 노력하는 일이 의원의 본분이며 소망이어야 한다.”

그리고 허준이 그 앞에서 오열하며 맹세하는 말, “천지 신명과 스승님은 제 맹세를 들어주소서! 만일 이 허준이 배풀어 주신 스승님의 은혜를 잠시라고 배반하거나 벌하소서...”

또 이 허준이 의원이 되는 길을 피로워하거나 병든 이들을 구하는 데 게을리하거나 약과 침을 방자하여 돈이나 명예를 탐하거나 저를 벌하소서, 맹세코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리다.”

여기에 무엇을 더하겠는가.

醫가 무엇이든 醫者는 무엇이든 어찌하여야 할까를 누가 이이상 표현할 수 있겠는가.

지체 높은 대감댁에 왕진차 가셔도, “난 이 집에 병을 고치러 온 것이지 屈身하러 온 것이 아니올시다”라고 하면서 오만에 찬 대감에 조금도 비굴함이 없었고, 스승의 왕진을 요청했는데 왜 젊은이가 왔느냐는 무례한 질책에도, “병은 명성이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하는 대답은 참으로 의학의 본질과 사명을 바로 아는 확실한 신념이 아니고서야 가능했겠는가.

치료에 임해서는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했고, 그리고 종기를 입으로 빠는 일도 서슴없이 행하였다.

내가 느낀 감동을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다.

훗날 광해군의 생모인 공빈의 친정 동생 김병조의 구안와사를 고칠 때, 갖은 수모와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대처한 의지, 기개를 누가



허준이 한의학사상 주목할 만한 해부학자는 아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도처에서 극적 묘사를 통해 해부학적 지식이야말로 한의학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고 당위이며, 그전의 해부학이 허준의 시기에 이르러 크게 발전했다는 식의 인식을 독자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홍내낼 수 있단 말인가.

또한 그가 서자요 천민이라는 숙명적인 신분에서 처절하게 고민하지만, 그러면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공인의 자세는 모두 감동을 주지 아니함이 없었다. 또한 약자와 민족의 편에서 의술은 곧 인술임을 몸소 실천한 의료인으로서의 자세,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등등은 한결 같은 감동의 연속이었다.

그러므로 본서에 대하여 감동했고 감사한다는 얘기 이외에 다른 말이 있을 수 없다. 또한 오늘날 전통적인 모든 것이 많이 퇴색되고 경시되어온 현실을 감안하면 이같이 신선한 충격을 주는 작품을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일이 아닐 것이다. 더욱이 한의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한의학계의 불후의 업적을 남긴 先賢을 조금은 과장했고 다소 허구가 심하다 해서 폄하할 수 있을 것인가.

필자는 이러한 주저 때문에 이 글의 청탁을

받았을 때 주저하고 곤혹스러워 했. 마치 남들은 자기 조상을, 자기 가문을 흠모하는데 그 자신은 그 조상을 욕질이나 한대서야 말이 되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쉬움이 없지는 않다

이 「소설 동의보감」이 너무도 많이 읽혀져서 그 내용에 관하여 필자의 의견을 묻는 이들이 꽤 있고 이때 허준의 의도나 이은성씨의 의도와는 거리가 먼 오해도 있음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몇 마디 얘기하고자 한다. 첫째로 과연 허준의 스승 유의태의 죽음의 현상이 사실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그간 허준의 일생, 유의태의 생애를 조사해 보았으나 과묵한 탓으로 아직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구안와사를 반위(위암)의 결과로 본다는지 위암을 치료해야 구안와사가 낫는다는지 하는 기록은 「동의보감」에 없다.

그보다 「동의보감」은 구안와사나 위암이 환자의 무절제한 생활태도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그런 정신자세가 바로 되도록 하는 것이 의술의 참모습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소설이란 그 속성상 아무리 사실에 입각한다 할지라도 허구적인 면이 전혀 없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것들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데 이 사실을 놓고 개중에는 당시까지의 해부학적 지식이 인체의 구조나 내장의 위치 정도의 지식도 갖추지 못한 학문이었다고 오해하는 독자가 있는 듯하다.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동양의학의 가장 오래된 책이고 가장 깊이가 있으며 가장 높은 경지로 오늘날까지 인정하는 「황제내경」에도 “解剖而視之”(해부하여 볼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고 상당한 수준의 해부학 지식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허준이 한의학 史上 주목할 만한 해부학자는 아니다. 다시 말하여 「동의보감」에 허준이 당시까지보다 월등한 해부학적 지식을 첨가한 바 없는데도 「소설 동의보감」의 도처에서 극적 묘사를 통하여 해부학적 지식이야말로 한의학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고 당위이며 그전의 해부학이 허준의 시기에 이르러 크게 발전하였다는 인식을 독자에게 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한의학에 있어서 “삶이란 무엇인가” “병이란 인간에 무엇인가” “치료란 무엇인가”라는 큰 물음에 대한 추구는 매우 중요하다. 한의학은 한마디로 “무슨 병인가”보다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서양의 학자들은 한의학을 유기체설, 정체관, 정신과 육체의 일원론 등으로 설명하면서 의학이 바로 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서구에서도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한의학의 진면목을 독자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데 위의 예와 같은 것은 적절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의학사에 큰 자취 남긴 의료인상 묘사

서두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이러한 까닭으로 하여 「소설 동의보감」이 한의학의 본질을 왜곡했다든지 오도할 가능성이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요소가 있다 해도 「소설 동의보감」은 참된 의료인 상의 묘사를 통하여 한의학의 참모습을 홍보해 주었고 또한 한국인의 긍지를 살려주는 훌륭한 책임에 틀림없으므로 조금도 폄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의학사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허준과 같은 의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분에 대한 평가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여러가지 제약이 따른다고 하겠지만 보다 사실적인 자료에 의거해야 하겠다는 것이다.